

광주 서구, 지역아동센터 기초수어(手語)교육 운영

실제 언어·청각장애인 선생님 직접 교육 진행해 서구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일환...장애인식 개선

광주 서구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서구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인 소리없는 메아리 두근두근 수어교실을 올해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수어교육은 브니엘 등 20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실제 수어를 사용하는 언어·청각장애인 선생님이 직접 교육을 진행한다. 수업은 지역아동센터에 입소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당 약

2시간 가량으로 연중 진행되며 학기 중에는 방과후 돌봄교실, 방학 동안은 종일 돌봄교실 수업으로 제공된다. 지난 해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새로운 소통방법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리로 말을 전하지 않고 손으로 말을 만들어 이야기하는 수어(수화)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

로 확인됐다. 수업을 진행하는 청각장애 선생님이 또한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어느새 아이들과도 많이 친해져 자신의 일에 긍지와 보람을 가지게 됐다”며 서구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고마움을 전하였다. 서구청 관계자는 “언어·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거부감 없이 수어(수화)교육에 열의를 보이는 아이들을 보면서 수어(수화)교육을 통해 장애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이슬기자



구례군,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만전 52억 투입 다양한 사업 전개

구례군은 올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통한 행복한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두고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해 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재가 장애인이 신변·가사·이동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사지 마비, 외상 등의 최종중 장애인은 월 840시간의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만 64세까지였던 지원 대상도 완화하여 65세 이후에도 돌봄을 지원받도록 한다.

성인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는 기존 그룹형 이외에 장애인 1명에게 전담인력 1명을 편성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 오는 4월부터는 정신, 간, 안면 등 15개 장애유형에 10개 질환이 추가로 장애인정이 된다. 장애정도 심사에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가 제도화됨에 따라 장애등록시 맞춤형 상담의 전문성도 강화될 예정이다. 장애인등록증 발급절차를 조폐공사 제작 후 가정에 직배송이 되도록 개선하여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체 대상자에게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추가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 밖에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등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계획이다. 한편, 구례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주1회 가정방문을 하여 부식물품을 전달해주며 급식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고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광양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소득하위 40%→70%

광양시는 올해 기초연금 예산으로 567억 원을 편성하고,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을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소득하위 70% 이하만 65세 이상 노인 중 단독가구는 최대 월 30만 원을, 부부가구는 최대 월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수급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받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48만 원에서 169만 원으로, 부부가구 236만 8천 원에서 270만 4천 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작아야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작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장흥군, 화재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1300세대에 다음달 말까지 주택용 소화기 1300개·단독 경보형 감지기 2600개

장흥군은 지역 내 화재 취약계층 1,300세대에 3월 말까지 주택용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한다. 장흥군은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배

부할 뿐만 아니라 장흥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이들에게 소화기와 감지기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초기 화재 대응 방법 및 대피 요령 안내 등의 예방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준승 장흥군수는 “화재 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화재 취약계층 대상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에 기초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흥소방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흥군은 2020년에도 화재 취약계층 3,400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화기 3,400개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6,800개를 보급한 바 있다.

장흥=김도영기자

목포시, 설 연휴 복지사각지대 살피고 안전 총력

안심기동대 운영해 안부 살피고, 명절 음식 나눔



목포시가 설 명절 연휴 기간 운영한 안심기동대가 귀감이 되고 있다. 시는 설 연휴 기간(2.8~2.14) 고립되기 쉬운 복지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하고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안심기동대를 운영했다. 시는 도움이 필요한 고위험 1~2인 가구 및 연휴기간 중 가족 왕래가 없는 복지대상 47가구를 사전에 조사한 뒤 안심기동대 42명과 1대1로 짝을 이뤄 명절 음식을 나

누고, 매일 안부를 살폈다. 안심기동대는 지역 실정을 잘 알면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이웃 등의 자을 참여로 구성된 각 동의 인적안정망으로 시는 복지가구 돌봄 뿐만 아니라 돌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기간 보호가구를 살피며 살피준 안심기동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안전에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